시민일보

마포구서 '푸드트럭 사장님' 되자!

고수현 기자 승인 2017.08.23 15:05

농수산물시장내 중앙로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내일까지 영업 희망자 모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마포농수산물시장내 중앙로 446㎡ 구간을 푸드트럭 시범거리로 조성, 오는 9월16일 개장한다.

구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푸드트럭 시범거리 사업에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푸드트럭 사업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게 되며 전액 시비로 총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25일까지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모집한다.

시범거리에는 총 10대의 푸드트럭이 들어설 예정이다.

푸드트럭 거리는 단순히 먹거리 운영이 아닌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으로 허가 면적은 1대당 너비 2.3m×길이 5m로 11.5㎡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돼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로 신청은 구 시설관리공단 2층 시장사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서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은 총 10대의 푸드트럭 중 일반존(5대)과 특화존(팀·5대)로 구분해 모집한다.

개인은 일반존으로 신청, 특화존은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하는 것으로 5명 미만의 팀으로 구성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오는 31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영업 개장일은 9월16일 예정으로 푸드트럭 운영은 별도 지정하는 사용 개시일부터 1년 2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총 96일간 운영하게 된다.

영업시간은 3월부터 7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월부터 11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푸드트럭 거리 조성이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